

2015. 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5.10.20	대전MBC 대회의실	6/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박희원, 장백기, 성정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4	6	-	2	12	-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3	-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1건	11건	9월
교양	TV 건강프로그램 시청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동작 보여주길	시청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영상으로 처리	9월
교양	교양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실생활 도움 되는 정보 다루어지길	교양프로그램 정보성 아이템 소재발굴하여 전달	9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주요 이슈 현안문제 잘 다루어지길	시사프로그램 이슈 현안문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9월
보도	뉴스데스크 요일별 기획코너 강화	요일별 기획코너 특색 있게 차별화하여 강화하고 있음	9월
교양	FM 예쁜엽서전시회 라디오 특화행사로 자리잡길	예쁜엽서전시회 특화행사로 꾸준히 준비	9월
보도	기자 보도 시 귀경길, 귀성길, 귀갓길 등 분별력 있는 표현을	뉴스에서 언어 사용 유의	9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자영업자 문제점 잘 지적해, 어려운 계층 꾸준한 관심을	시사프로그램에서 꾸준하게 관심갖고 취재	9월
기타	홈페이지 교양프로그램 관련 제목 맞게 재배열을	홈페이지 내용과 맞게 제목 재정리	9월
교양	메르스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기획 눈에 띄어	시사성 있는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앞으로도 다룰 예정	9월
교양	건강프로그램 중 건강음식 코너 등장전문가가 많아	제작에 반영 적정인원으로	9월
보도	보도 기획코너 브릿지 영상 삽입	브릿지 영상 제작하여 운영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0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이번 주 시사광장은 「최악의 가을 가뭄, 어떻게 극복하나?」 편(10월11일)이었다. 현재 보령시에서 제한 급수까지 시행하게 된 최악의 가을 가뭄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각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시사광장에서는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통해 토론의 주제인 가을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기본적인 관련 용어의 개념과 가뭄 실태, 전망치에 대한 토론 참여자들의 설명은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토론 참여자들이 준비한 도표와 수화 방송화면이 겹쳐 도표 확인이 어려운 아쉬움이 남았다. 세부적인 관심이 일반시청자와 청각장애인이 모두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한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정부, 지자체, 수자원 공사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는 해결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다만, 단기적인 가뭄 해결을 위한 대책과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하여 토론을 진행한다면 보다 방송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p>화면 우하단의 수화방송 화면이 패널들이 준비한 도표 등의 자료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p> <p>제한된 시간이어서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한 토론이 미흡했던 점 인정한다.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하겠다.</p>	○		
교양	<p>이번 테마기행 길 「단양의 가을 이야기」 편(10월 6일)에서는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남한강,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를 지닌 충북 최북단 단양에서 단양 8경의 모습을 담아 아이들에게는 배움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p> <p>단양에서의 첫째 날에는 단양 8경인 도담삼봉과 고수동굴 등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를 여러 해설사분들이 설명해주어 시청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양의 맛집을 찾아가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였다. 둘째 날에는 한옥마을을 찾아가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여주면</p>	<p><테마기행 길>은 민방소재 지역MBC 9개사가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문화와 볼거리, 먹을 거리를 소개하는 기행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방송되고 있다. 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호소력 있는 진행자를 선정하며 최신 트렌드에서 멀어지지 않게 연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와 기획회의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p>	○		

	<p>서 각박한 세상 속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전원생활을 유도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특히 전문리포터와 인기가수가 적극적인 참여와 재미있는 말솜씨로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또한 리포터의 친근한 설명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인터뷰 등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단양을 찾은 관광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오덕성).</p>			
<p>기타</p>	<p>지난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대전MBC가 마련했던 ‘한가위 선물 큰잔치’는 충남지역의 농어민과 지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행사로서 부족함이 없었다.</p> <p>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문을 연 토요일장터인 ‘대전MBC 로컬푸드 푸른 밥상 직거래 장터’는 품질과 착한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갈수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대전MBC로 이끄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방송사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한다.</p> <p>이 토요일장터는 다음 달까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한 이 행사는 지금까지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더 향상된 알찬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 가기를 기대한다.</p> <p>이 토요일장터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린 ‘한가위 선물 큰 잔치’에 만여 명의 지역민들이 찾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다가올 명절 설에는 보다 더 다양한 먹을거리가 선 보였으면 한다.</p> <p>특히 밀려드는 주문을 미처 감당할 수 없었던 인기 품목들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아쉬운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겠다.</p> <p>오는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간 한우 축제도 기대된다.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p> <p>대전MBC 야외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러한 직거래 장터는 갈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대전MBC가 추구하는 ‘도농 상생과 농산물 직거래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바란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대전MBC 농업회사법인 FNC에 박수를 보</p>	<p>대전MBC는 소외받고 경쟁력이 약한 지역소농, 영세농, 고령농 그리고 귀농인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익단체 성격인 농업회사법인 FNC를 설립하였다.</p> <p>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향마실페스티벌, 논산딸기 프로모션, 대한민국 김장나눔 대축제, 대전MBC 토요일장터>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p> <p>직거래장터는 7월11일부터 11월7일까지 26회를 진행하였으며 한가위 명절선물전과 한우소비촉진 캠페인 한우day등 다양한 기획으로 대전지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p> <p>한가위 선물전에서는 9일간 매출 2억 6천, 한우DAY에서는 이틀 10시간 동안 2억5천이라 놀라운 판매를 자랑하기도 하였다.</p> <p>총 26회 진행하는 동안 실적을 보면 총 방문자수:6만5천명 총판매금액:10억3천원의 결과를 내놓았다.</p> <p>직거래 장터는 앞으로 더 발전하여 우리지역 로컬 푸드 유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p> <p>또한 토요일장터의 노하우를 대전·충남·세종 우리 지역에 전파하여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송과 교육의 공익적 시너지를 발휘하여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농업 발전 롤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장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2016년에는 대전MBC에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노력하겠다.</p>	<p>○</p>	

	낸다(김학선).				
교양	<p>많은 이들이 ‘축하 드립니다’ 또는 ‘감사 드립니다’ 와 같이 쓰는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 화법 해설>에 따르면 ‘축하를 드리다’ 나 ‘감사를 드리다’ 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한다.</p> <p>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말씀 드리다’ 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 드리다’ 의 말씀’ 은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 나 ‘축하’ 의 경우는 ‘드린다’ 는 말이 어법상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대라고 설명하고 있다.</p> <p>또한 ‘사죄’ 의 경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죄를 드리다’ 역시 어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대라고 할 수 있다.</p> <p>따라서 ‘축하 드립니다’ 는 ‘축하 합니다’ 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로 고쳐 말할 수 있다.</p> <p>그리고 ‘사죄 드립니다’ 는 ‘사죄 합니다’ 로 바꿔 말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김학선).</p>	<p>아나운서 및 진행자에 대한 바른말 사용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p> <p><드리다>에 대한 사용례와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진행자들에게 주의 를 주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 (10/2)에서 “태양광발전의 두 얼굴” 이란 제목으로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관련 내용이라 관심을 갖고 시청하였다. 태안군 용신리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나무숲 지역 8900평을 벌목함으로써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주민의 갈등과 반대로 어려움 겪는 상황을 잘 취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대규모 발전회사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의무화하는 RPS 제도의 문제점을 잘 취재하여 방영하였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대규모 시설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 됨을 지적하였다. 소형 태양광발전 시설의 성공적 운영 사례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시설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발전시설의 현황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들었다.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면 더욱 좋았겠다(김명수).</p>	<p><시사플러스>는 지역의 다양한 시사문제를 직접취재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p> <p><태양광 발전의 두 얼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당하거나 바르지 않게 적용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른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했다.</p> <p>대규모 발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차기 유사 소재 방송시 참고하도록 하겠다.</p>	○		
기타	대전MBC 홈페이지 관련하여 VOD로 지난 방송을 다시 볼 때, 뉴스 VOD의 경우 화면 원편에 뉴스 기사보기가 나오는데 ‘오늘	현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홈페이지 개편이나 새롭게 구축할	○		

	<p>의 뉴스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VOD 뉴스 화면과 매칭시켜 관련 내용을 바로 클릭하여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시사플러스나 다른 VOD에서는 오늘의 TV 프로그램 편성이 나오는데, VOD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매우 편리하고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명수).</p>	<p>때 검토하겠다.</p>			
<p>보도</p>	<p>뉴스데스크 10월 13일자 '톡톡 과학기술' 에서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아티언스 대전 전시회 행사를 소개하였는데, 앵커의 시작 멘트로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예술작품과 접목하여 감동을 준다' 는 멘트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좋은 언급이었다(김명수)</p>	<p>뉴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부터 드린다. 과학 관련 뉴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사 작성을 위해 기사 한 줄 한 줄에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p>	○		
<p>보도</p>	<p>우리나라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끔 대전MBC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중국인이 이 섬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무산시켰고 또한 유인등대도 부활되었다. 대전MBC 보도로 성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꾸준하게 지역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대전MBC 뉴스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형주)</p>	<p>서해 격렬비열도의 경우, 지정학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특히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동해 독도보다 주목받지 못해왔다.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 분쟁을 불러올 수 있어 격렬비열도의 현안을 고의로 외면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요 영해침범 장소이고, 중국인의 매입시도까지 불거지면서 대전MBC의 보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 지속적인 보도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격렬비열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온 국민에게 독도 같은 의미의 지닌 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도에 나서겠다.</p>	○		
<p>교양</p>	<p>대전MBC 시사플러스 제작팀이 취재를 통해 "김태원"이 독립운동가가 아닌 가짜 독립운동가라는 의혹을 다루었다. 시민단체도 보건처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결국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후손이라며 50년 가까이 보건연금 등을 받아온 김아무개씨 등에 대해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국가보건처 보건심사위원회는 밝혔다. 방송의 역할을 상기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김형주).</p>	<p>시사프로그램으로서 <시사플러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된 사례이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p>	○		
<p>교양</p>	<p>전국이 보인다(10월 11일)는 전국 지방MBC 여러 개 코너가 선을 보인다. 이 중 대전MBC 코너로 6.25참전 용사의 DMZ방문을 다루었다. 현재는 고령의 백발이지만 격전지를 돌아보며 참전용사이었던 그분들의 감회를 보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누리는 현재의 평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새삼 다시금 깨닫는다. 좋은 기획 의도로 제작되었다고 본다(한찬희).</p>	<p><전국이 보인다>는 대전·충남 지역의 소식외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감동적인 소재를 발굴 방송하도록 하겠다.</p>	○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10월 5일)>에서 다른 코너는 1. 집밥을 찾아서(금산군 부리면), 2.충북 괴산여행, 3.나 혼자 즐겁게 산다 퍼스널 모빌리티 4. 21세기 콧바람 죽루죽 기행 등이었다.</p> <p><아침이 좋다> 자막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인상을 주고 있어 좋았다.</p> <p>코너 중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살펴보겠다. 이 코너는 제주MBC에서 제작을 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p> <p>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 흥미로웠다.</p> <p>퍼스널 모빌리티는 센서가 탑재된 제품 위에 사용자가 올라타면 무게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다. 안전을 위해 안전헬멧과 무릎보호대 착용은 기본이다. 리포터가 자신도 한 번 타 보겠다고 시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착용 없이 시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스튜디오에서 MC가 안전장치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본다(유덕순).</p>	<p>퍼스널 모빌리티의 문제는 이미 앞서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적응이 부족한 것으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방송에 적용하도록 하겠다.</p>	○		
<p>보도</p>	<p>뉴스의 <오늘의 행사>에 과학기술 등의 행사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길 바란다(김명수).</p>	<p>대덕특구 정부 및 민간출연연, 그리고 특구본부 등의 일정을 추가로 취합해 과학계 행사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오늘의 게시판 코너를 보강하겠다.</p>	○		